

2026년 10월 02일(금) 구역예배 자료 <기도 응답, 주님의 천사> 사도행전 5장 12~26절

-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384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5장 12~26절(신194)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375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09월 27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꼽으라면,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바르고도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소원으로 삼아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요약>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는,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질병 치유와 축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남녀의 큰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통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 결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간구하기 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또다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17절은,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주목하고, 사도들에 의해 기적이 행해지며, 사도들에 의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기하는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하나 됨을 깨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시기’를, ‘더러운 죄’라고 별명을 붙이는데, 그 이유는, ‘시기’가 주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시기하도록, 사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기서 ‘주의 사자’는, 헬라어, ‘앙겔로스 퀴리우(*angelos kuriou*)’를 번역한 것인데, ‘앙겔로스’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서는, ‘천사’를 뜻하는, ‘angel’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상 사역을 돕고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며, 형벌을 내리거나,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의하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는데,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감옥 문을 여시고,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가둔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못할 정도로, 어둡거나 깊은 감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게 닫혀있는 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정도로,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감옥과도 같은 삶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굳게 닫혀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천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역원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기>

1.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 확실하게 응답받은 기도의 경험이 있나요? 나누어 봅시다.
2.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각종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